

스무번째 이야기

[2019 말씀을 행하라 시리즈 ④]

뜻대를 향하여

넓고 청명한 가을하늘 그리고 그 아래 무르익은 과일들의 깊은 향내만큼이나 풍성함이 가득한 9월 시작 즈음에, 항상 편안한 웃음으로 토요일 기도모임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안지민 권사님과 'BEE수'팀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몽 주스의 상큼한 풍미와 음악과 함께!

Q: 권사님을 보면 신앙심 깊은 가정에서 성장하신 것 같은데 신앙생활과 BEE를 만나게 된 계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A: 저는 결혼 전 청년부 회장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남편을 만나고 나서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 6개월 정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면서 남편까지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주례하신 목사님을 만난 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 후 10여년이 흐른 뒤 남편의 적극적인 권유로 2006년 온비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BEE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처음에는 세미나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직장일과 함께하는 세미나에 적응하기 힘들어 로마서까지만 하고 그만두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마치고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중국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나의 삶과 BEE 선교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자였다면 그 이후로는 남편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Q: 사역 현장에서 많이 뵈는데 사역들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새가족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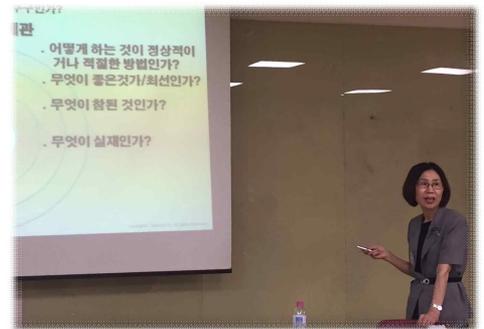
A: BEE를 통해 훈련 받으면서 온누리교회 새가족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면서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인데 등등 여러 가지 불만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또 다른 위치에 서보니 불만스럽게 생각되었던 일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고,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BEE 세미나에서 배운 말씀이 새가족 사역 현장에 적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 현장에서 증명되고 검증되어 말씀 안에 더욱 견고해지며, 나의 모난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서 제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Q: BEE를 통해 얻은 유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무엇보다도 저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BEE에서 여러 과목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과목이 저에게는 많은 도전과 함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는데 벌써 10년도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때 저는 허용되는 죄와 허용되지 않는 죄를 구분하려는 습관이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할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진행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 궤도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물론 추가비용이 투입되었지만) 그 경험 이후 제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원칙을 세워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세미나

Q: BEE 사역을 하면서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일들은?



몽골 아웃리치

A: 최근 일인데요 지난 6월에 몽골 사역(5명)을 다녀왔어요. 무언가를 경험하고 체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들과 함께한 5일의 시간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24명의 졸업과 FTS가 진행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지도자들과 그들 중에는 1박 2일의 여정을 거쳐 멀리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자연을 많이 닮은 사람들입니다! 직관적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생활하다보니 틀에 맞게 무엇을 기록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는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FTS진행 중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유하는 아기엄마(학생)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연을 닮은 생활

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으나 몽골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세미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구나’, ‘복음은 하나구나’라고 느끼며 언어가 정확하게 통하지 않더라도 서로 웃으며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Q: 신앙생활에서 힘, 위로가 되었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A: “뾰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4)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는 상급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후부터는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삶 가운데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손해 본 듯 한 느낌이 생길 때,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때, 사역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해냈다고 생각될 때 등등 내 안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뾰대를 향하여’라고 선포하면 정말 이 모든 유혹들로부터 자유함을 느끼며, 내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Q: 개인적인 비전이 있다면? BEE 사역과의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A: 퇴직 후 여러 지역의 선교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나누고 선교지 땅을 위해 기도하며 다녀보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Q: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면?

A: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에 욕심 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눔으로 행복해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원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만원으로 맛있는 걸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행복합니다.” 아들에게 무엇이 행복인지, 참된 신앙인의 행복한 삶의 모습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Q: 올해 BEE는 ‘말씀을 행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영역들이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A: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3:23-24)

교회의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하는 책임 있는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공동체 식구나, 동역자 가족 중 상을 당하면 될 수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려고 애쓰고,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물러설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낄 때 도울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Q: 나에게 BEE란?



서남아 기도테이블

A: “마중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마를 때마다 나에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BEE에 발만 담고 있어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미나를 통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제 자신을 변화시켜줍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인터뷰, 정리 : 김옥숙, 편집: 최선-‘BEE수’기자]

BEE의 보석 찾기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20. 김성주 간사



개발도상국에 새우 양식 기술을 전수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걸쳐진 발을 거두어 하나님께로 온전히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삶을 주께 드리게 되었을 때, 처음 만난 곳이 BEE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BEE를 통해 저의 모난 성격을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놀랍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BEE는 ‘손톱깎기’ 같다고나 할까요?

본부는 특성상 BEE선교사님 이외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시는데,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 다양한 선교사님들 만큼이나 본부에는 각국의 특색 있는 간식들로 늘 풍성합니다. 이색적인 음식과 함께 세계를 이해하는 사이 몸이 점점 풍성해지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누리 교회 관악금천 공동체에서 순식구와 예배드리고 있으며, 부총무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내 정진영, 씩씩한 아들 김은찬이 있습니다.

21.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군불이 꺼지지 않도록 충성으로 BEE 중동아프리카 기도 테이블을 섬기고 있는 귀한 형제님이 양재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9월 말씀을 행하라! '양선: 자비로부터 나오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 주려는 세심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자신에게, 가족에게, 신앙공동체와 세상에게 다가가는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BEE WORLD! BEE WORLD CONFERENCE : 10월 2일-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지난 40년 간 하나님과 동역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